

■ 자동차 구입 Trend 특집

1. 새차 구입자의 연령대 Trend
2. 구입 차종 Trend
3. 연료 타입 Trend(전기차, 하이브리드 등)
4. 차량의 보유 시장 Trend(렌트·공유·구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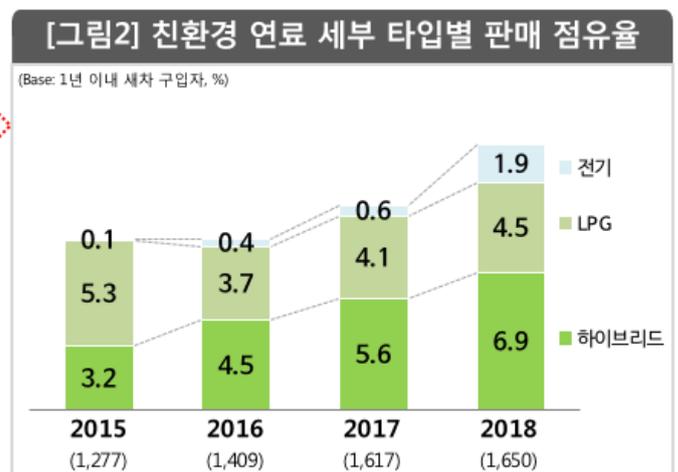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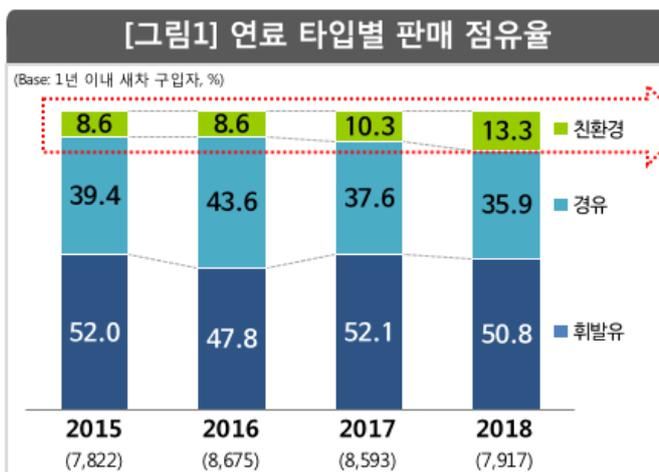
자동차 소비자 리포트 19/20-3 ;

급증하는 친환경 연료차, 치열해지는 경쟁

- 디젤 돌풍 끝난 후 친환경 연료 득세
- 하이브리드에 밀린 LPG, 대역전 기회 열려
- 전기차 급증세로 판세 전망 어려워

친환경 연료시장에 돌풍이 일고 있다. 시장 자체가 급속히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연료간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. 3월말 LPG차량의 구입·개조가 자유로워지면서 대 혼전이 벌어질 전망이다. LPG를 넘어 쾌속 질주하는 하이브리드에 재역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매년 7월에 실시되는 컨슈머인사이트의 대규모 자동차 기획조사 중 지난 4년간 조사에서 구입 1년이내인 자동차의 연료 타입별 점유율을 휘발유, 경유, 친환경으로 나누고(그림1), 다시 친환경을 하이브리드, LPG, 전기차로 나누어 보았다(그림2).



2015년부터 '18년 까지 4년간 팔린 새차의 연료 타입을 보면, +가장 큰 휘발유는 시장의 1/2이상을 차지해 왔으나, '16년 경유에 밀려 처음으로 50%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. +경유는 수입 디젤의 고연비 돌풍으로 급성장해 '16년 43.6%로 휘발유(47.8%)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나, 연비의 정확성과 미세먼지

For more Information

문의: 박승표 이사 Tel. 02) 6004-7661 Fax 02)543-5984 e-mail: sammy.park@consumerinsight.kr  
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. www.consumerinsight.co.kr

관련 논란으로 '18년 35.9%로 급감했다. 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+친환경 연료는 '16년 8.6%에서 '17년 10.3%, 18년 13.3%로 급성장하고 있다. 전체적으로 경유차의 위축, 친환경차의 확장세가 분명하다[그림1].

친환경 연료 타입별로 보면 하이브리드의 성장세가 탄탄하다. '15년 3.2%에서 매년 1%포인트 이상 상승하며, 3년 만에 두배가 넘는 6.9%로 성장했다. 하이브리드는 줄곧 일본계열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, 최근들어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크게 좋아졌다. 특히 연비 측면에서의 평가는 기대 이상이다. 수입 하이브리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, 수입차 돌풍에 결정적 기여를 한 수입 경유차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. 하이브리드 시장의 잠재력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호재다.

LPG는 '15년 5.3%로 친환경 시장의 1/2이상을 점유했으나, 일반 사용자에 대한 규제로 '16년 3.7%로 급감했다. 그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하이브리드와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아직 '15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.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LPG차량의 구매와 개조에 대한 제한을 대폭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. 또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및 구매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을 통해 2022년까지 54만 5,000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<sup>1)</sup>. 이런 환경변화는 자동차 연료 시장 경쟁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.

전기차는 '15년 0.1%로 점유율이 미미했으나, '18년 1.9%로 전년도(0.6%)의 3배 이상에 이르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. 전기차의 증가는 틀림없다. 그러나 어느 정도일지는 내다보기 어렵다.

친환경차가 대세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. 그러나 다양한 친환경 연료와 연료의 조합 중 어느 것이 가장 유망할지는 예단키 어렵다. 기존의 하이브리드, 전기차, LPG 외에 수소차도 정부와 국내업체가 후원하는 대체 연료다. 어느 연료가 우세를 점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.

1)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내용 일부

=====

◆ 참고 : 「컨슈머인사이트」 '연례 자동차 기획조사' 개요

「컨슈머인사이트」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(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)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.

**For more Information**

문의: 박승표 이사 Tel. 02) 6004-7661 Fax 02)543-5984 e-mail: sammy.park@consumerinsight.kr  
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. www.consumerinsight.co.kr

<b>모집단</b>	자동차 보유자 및 2년내 신차 구입의향자	<b>2018년</b>	<b>93,230명</b>
<b>표본 추출의 틀</b>	컨슈머인사이트 IBP (Invitation Based Panel) 채널 및 주요 포털 사이트 회원 중 할당 후 무선험출	2017년	96,213명
<b>표본 추출 방법</b>	성별/연령 고려 할당 추출	2016년	100,788명
<b>조사 방법</b>	E-mail survey	2015년	105,672명
<b>분석 샘플 규모</b>	연 평균 100,000명	2014년	101,821명
<b>조사 내용</b>	U&A (Usage & Attitude) 정보 및 CEQ (Consumer Experienced Quality)	2013년	101,701명
<b>조사 기간</b>	매년 7월	2012년	95,012명
		2011년	97,356명
		2010년	106,291명
		2009년	91,129명
		2008년	95,472명
		2007년	105,149명
		2006년	106,088명
		2005년	139,825명
		2004년	171,499명
		2003년	118,195명
		2002년	129,277명

**For more Information**

문의: 박승표 이사 Tel. 02) 6004-7661 Fax 02)543-5984 e-mail: sammy.park@consumerinsight.kr  
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. www.consumerinsight.co.kr